



## 최대 283mm '물폭탄' 속수무책...광주·전남 피해 '눈덩이'

함평서 1명 실종·농경지 1천800여ha 침수  
광주 도심 침수·붕괴·정전 사고도 잇따라

광주·전남에 최대 28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광주는 5년 만에 시간당 강수량 최대 54.1mm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도로 등의 침수, 붕괴 피해 등이 잇따랐고 전남지역에서도 1명이 실종되고 농경지 1천800여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관련기사 3·6면

◇함평 시간당 71.5mm...250mm 더온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365.2mm, 구례(성삼재) 310.5mm, 나주 309.5mm, 화순(북면) 304mm, 곡성 300mm, 담양(봉산) 272.5mm, 광양(백운산) 272mm, 보성 267.3mm 등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함평 71.5mm(27일), 나주 60.5mm(26일), 고흥 55.5mm(28일) 순이었으며, 광주는 최대 54.1mm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시간당 최고 강수량(극값)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부터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9·30일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100~200mm, 많은 곳은 250mm다. 특히 29일 늦은 오후부터 30일 이른 오

전까지 전일처럼 시간당 30~60mm의 집중 호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장·도로·주택 침수피해 속출  
밤 사이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곳곳에서 인명 피해를 포함한 호우 신고가 빚발쳤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호우 관련 신고는 총 270건(광주 185건, 전남 85건)이다.

전날 오후 9시49분께 북구 일곡동 한상가건물 4층 기계실에서 옥상문을 열던 50대가 감전돼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오후 10시께부터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침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남구 진월교차로 일대, 동구 계림동, 서구 금호동 차도도 물에 잠겨 차량을 통제할 후 소방 당국이 배수 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5시11분께는 북구 석곡동 한 지하차도에서 침수 차량에 갇힌 남성이 구조됐으며, 동구 소태동 한 주택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뚫고 방안으로 들어와 인근 5세대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실 제방 '긴급 복구'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28일 오전 광주 북구 석곡동 동초등학교 인근 석곡천 제방이 무너져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예리 기자

전남에서는 전날 오후 10시32분께 함평군 엄다면에서 60대 수리시설 관리원이 하천 수문을 점검하던 중 실종돼 현재까지도 소방대원 90여명이 일대를 수색 중이다.

◇농경지 1천800여ha 침수...정전  
모내기과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공식 집계된 비 침수 피해 면적은 나주 486ha, 보성 415ha, 고흥 307

ha, 곡성 154ha, 여수 145ha, 장성 125ha, 함평 88ha 등 총 1천822ha다.

나주와 보성의 시설하우스 38ha도 침수돼 멜론, 레드향, 애호박, 고추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낙뢰 등으로 인한 정전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전날 오후 11시40분부터 나주 부덕동, 봉황면, 세지면 일대 356가구 전력 공급이 3시간20분 동안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 광산구 일곡동 일대 상가와 성내마을 등 100여가구에서도 전기가 1시간20분 동안 끊겼고, 광양시 중동 상가와 보성군 벌교읍 주택에도 정전이 발생했다.

◇무등산 탐방로 등 13개소 교통 통제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교통 통제는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국립공원 무등산 2개 탐방로, 양동복개사가 하루 주차장, 우석

지하차도, 광천1교, 광천2교, 광암교, 광신대교 하부도로 등 13개소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남광주교차로-지산사거리, 공평사거리 지하차도, 계수사거리 천변좌회로, 동림동 성당 입구, 각하 IC-각하 사거리 등 도로도 통행이 제한됐다.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53항로, 83척 여객선 중 18항로, 25척 운항도 통제됐다. /오복·주성학 기자

## “향후 5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골든아워”

●김영록전남지사 민선8기1주년 인터뷰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공항 동시이전’ 필요성 강조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정치’ 이어갈 것”

김영록 전남지사가 “향후 5년이 무안 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골든아워”라며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전남 서남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

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지사는 광주매일신문과의 민선 8기 1주년 인터뷰에서 “지난 5월 공항 관련 담화문 발표 때 큰 절까지 하며 호소 한 것은 무안이 민간·군공항이 함께 들

어설 최적지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국가계획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제선 다변화, 활주로 연장,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인프라 구축비가 최소화돼 더 많은 지역 발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군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의견이 중요하든도 지금까지 무안군민의

의견을 모을 속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안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피해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공청회·설명회를 자주 열어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 무안군민, 도민들

도 열린 마음,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바라봐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아 호남 정치가 실종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안다”며 “위기는 기회다. 호남 정치의 위상을 끌어올릴 역량있는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탁해야 한다. (호남이) 시대를 선도하는 대통령 정치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로 나뉘는 정치적 역할과 소명

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있다. 보여주기식 정치 행동이 아닌,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정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더불어 잘 사는 대통 세상을 위해 국민 대통합을 이끌고 소통하는 포용의 정치를 펼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과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기준치 이상방사능 책임지겠다” 4면  
한발 늦은 ‘예보’ 시민들 뿔났다 6면  
유연탄 값 내렸는데, 시멘트는? 12면

2023 광주매일신문 연중 공익 캠페인

봉사·나눔·배려로 만드는 지역공동체

###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전남은 예부터 정(情)이 넘치는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여건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나눠 국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2023년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정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행 기관·기업·단체 : (사) 광주광역시공무노동조합, 자평(주), 한수원시니어지능클럽,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여성가족위원회, 광주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행복나눔 집수리 사업단, 남양건설, 남양문화재단